십자가 캡슐인간

(고후7:1~16)

1.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2.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3.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4.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10.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 캡슐인간>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여러분, 캡슐이 뭔지는 다 아시죠?
캡슐은 성분이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는 젤라틴으로 만드는 작은 container죠.
그래서 예를 들어 콘택600이라고 하면 600개의 알갱이 때문에 600이 붙여졌다고 그래요, 그걸 캡슐에 담습니다.
또 간유구는 생선의 기름인데 냄새가 역해서 이 기름을 그냥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도 캡슐 안에 집어넣어서 먹게 되면 그 껍데기는 뱃속에 들어가서 녹아 없어지고 캡슐 안에 들어있던 약재들이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게 캡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캡슐인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인간 자체가 캡슐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내 마음 안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을 받아들일 때 겉으로 보이던

모습이 캡슐처럼 녹아 없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 캡슐이었던 겉모습 안에 감춰져 있던 그 사람의 기질이나 습관 같은 것이 드러나면서, 내 마음 안에서도 그렇고 내 삶의 마당 안에서 그로 인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을 거예요.

제가 섬기던 교회의 여자집사님이 계셨는데, 새벽기도가 끝나고 나면 제가 산책을 하거든요?
산책할 때 아침에 가끔 산책길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눈만 빼놓고 온 얼굴을 다 막았는데도 눈알 근처에 시퍼렇게 보여요.
결국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마는, 그분 남편이 교회의 중직자이십니다, 교육부의 부장님도 하시고 하는 분인데, 이건 뭐 날마다 아내를 두들겨 패는데 가끔 충동적으로 한두 번씩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일이에요.
그런 사람인줄 알았겠습니까?
그 남자 분을 제가 알아요, 교회 일 때문에 같이 머리 맞대고 논의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차마 왜 아내를 때리느냐 이런 얘기는 못하겠더라고요, 스스로 알아서들 상담을 하러 온다면 함께 기도라도 할 텐데, 겉으로 말은 못해요.
때려도 어떻게 그렇게 때리는지, 근데 너무 멀쩡하게 남자가 아주 잘생기셨습니다, 키도 크고 목소리도 좋고, 박력 있고, 교회 일도 얼마나 추진력 있게 잘하는지 몰라요.
아! 캡슐이에요, 캡슐.
우리는 캡슐만 보죠, 근데 부인의 입장은 그 캡슐에 담겨진 인격 자체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씩씩하고 예의바르고 추진력 있고 남자답게 생긴 캡슐의 껍데기는 다 녹아 없어지고, 속에 있는 기질이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성격적으로 고약한 기질이 생긴 사람만이 문제입니까?
전혀 이런 기질이 나타나지 않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들여다보면, 죄악의 습성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자기를 안 받아준다고 아우성들이지만, 실제로 받아들여도 되겠는가를 물어보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내 자식들이 나를 전적으로 받아들여도 정말 되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죄악의 습성, 내 속에 아무도 모르게 갖고 있는 나 혼자의 생각들, 겉모습 다 녹아 없어지고 그게 다 드러나게 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 걱정되지 않습니까? 아, 무서운 일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의 2절에 사도바울의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라는 이 말씀은 고린

도교인들과의 관계에서 얼마든지 사도바울이 말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냥 평범한 그 정도의 관계라면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넘겨버릴 수도 있는데, 마음에 딱 걸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예수님을 영접하라'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사도바울이 자기 자신을 영접하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생각해보면 사도바울의 신학과 그 속에서 나오는 모든 글들을 생각할 때 그 글 속에 '나를 영접하라'는 말이 들어있다는 것은 참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쓰면, '왜 나를 안 받아들여? 왜 나를 거부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영접하라는 이 얘기, 단어가 특이한 표현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봅니다.
사도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십자가를 담고 있는 캡슐인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거예요.
1절에 '이 약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약속'이 뭐냐 하면 앞의 6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 약속이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셔서.
이게 바로 '은혜의 때'라고 번역된 말씀을 얘기하면서 함께 나눴던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질 만한 때, 구원의 때다, 이게 바로 은혜의 때'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래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인데,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나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고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답을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목욕재개 하고 기다리면 됩니까? 수련하면 됩니까? 이를 악물고 율법을 지키면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 대답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면, '우리를 영접하라'라는 얘깁니다.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것은 아들이 결혼해서 분가해 따로 살면서 필요해서 호적을 떼보면 그 호적상에 아버지의 자녀로 돼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사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건.
호적상 그분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 관계라고 기록돼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결혼하고 분가해서 완전히 아버지의 내가 따로 사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사건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자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주신다는 것은 사건은 지금 발생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영접하라.
그런데 '영접하라'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하면, '너희 마음 안에 우리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라'라는 말입니다.
아! 이거 참, 대단한 말이에요.
누구라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너희 마음 안에 우리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신앙의 맥락에서 이 말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마음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동원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려면 마음에서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집이나 전토나 모두 미워하고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모셔드릴 자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셔드리려면 그 마음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남겨둬서는 안 되고, 마음자리 전체를 다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데에 동원이 돼야 되는데,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도바울이 자기 자신을 영접하기 위해 '너희들 마음 안에 나를 위한 마음자리를 만들어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십자가 캡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바울을 마음 안에 들여놓으면 겉으로 보이는 사도바울과 관계를 맺게 되고(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없으면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는 없을 테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내 마음 안에서 그 사람의 겉모습이 다 캡슐처럼 녹아 없어지고, 남는 게 십자가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런데 아니에요.
사람 중에서 신앙인은 죽어서 십자가를 남겨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겉으로 보이는 나의 모습이 다 녹아 없어지고, 아무리 나에 대해서 만나면 만날수록 연구하면 할수록 남는 것이라고는 십자가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이렇게 제대로 돼있는 십자가

캡슐인 사람들이 바로 사도라는 얘깁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말고는 마음에 받아들여서는 안돼요, 자식도 안돼요, 아내도 남편도 안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여도 돼요.
사도, 그 사도가 누구냐 하면 마음으로 받아들였는데 겉모습이 다 녹고 나니까 그 사람을 받아들인 자리에서 십자가만 남게 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만 받아들이라는 얘깁니다.
2절 앞부분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 다음에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절의 약속,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가 된다는 약속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사건이 돼야 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거룩하고 온갖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영접하고 나면 너희가 보는 나의 겉모습이 캡슐이라서 녹아 없어지고 내 안에는 오직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십자가만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도바울을 관계하고 관계해도 불의한 일이 없고 해롭게 하지 않고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는 것은, 사도바울을 관계하고 아무리 사도바울을 마음에 들여놔도 사도바울이나 자신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깁니다.
사도바울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도록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만이 남게 되는데, 이 십자가가 나를 거룩하게 해주는 것이고 나를 온갖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인간, 십자가 캡슐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이유는, 3절에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이 목적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나를 받아들이면 나는 십자가만을 담고 있는 캡슐이라서 십자가가 너희 마음에 남을 것이다, 십자가가 너희 마음에 남으면 나처럼 너희도 십자가에서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이 목적을 위해서 나를 받아들이라고 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캡슐인 걸 알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십자가 캡슐이 됩니까?
진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사건이 내가 알 수 있는 지식 중에서 가장 최고의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 그게 깨달아지는 사람,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십자가로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 십자가만 남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마음 안에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내가 자녀가 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에 약효가 나타납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최고의 지식인 걸 알고 십자가만으로 생활을 해나가는 사람, 사업을 해도 공부를 해도 연애를 해도 십자가만으로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주기도문을 외어도 십자가로 외우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이 땅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온갖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죽어야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온갖 주님의 말씀이 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가 사업에 대해서 죽음으로써 사업의 현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부부관계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아버지와 자녀가 되는 일이 부부관계의 삶의 현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사업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십자가를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기억하는 데에 있어 너무나도 유리한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혼자 십자가를 기억해내려면 힘든데, 학교의 40명 되는 한 클래스 가운데 한 친구가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사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십자가로 함께 죽기가 쉬운 거예요.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이 얘기를 어떤 주석에서는 보니까, 또 공동번역 성경에도 그렇게 해놨어요, 우리가 살아도 함께 살고 죽어도 함께 죽는다, 이거 이런 뜻 아니에요.
살아도 함께 살고 죽어도 함께 죽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끈끈한 인간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뜻이 아니에요, 부부의 인간관계라든지 깡패들의 의리라든지 아니면 우정이라든지, 애인들이 한참 뜨겁게 사랑할 때 서로 나눌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도 함께 살고'는 살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함께 살고, 죽는 경우가 있으면 함께 죽는다는 얘긴데, 오늘 본문의 우리 마음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것은 가정법을 쓰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함께 죽을 거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함께 산다는 얘기고, 이건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큼 거룩하고 깨끗해진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너희가 자녀가 되는 것이 시장에 가든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과 자녀가 되는 관계가 사건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 나를 받아들여라, 왜냐하면 나는 캡슐인간이기 때문에.

나를 너희가 받아들이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너희도 함께 나와 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제는 인간관계의 매개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혈연, 피를 나눈 형제들도 십자가를 생활화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끝까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 부모도 마찬가지에요, 십자가를 생활화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끝까지 같이 갈 수 없어요.
그 사람을 받아들이잖아요? 반드시 죄적인 요소가 내게 영향력을 미치면서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이루는 데에 방해가 됩니다.
다른 근심거리들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거예요.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을 구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뭡니까?
내가 시장에 있든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확인되어야 되고, 지금 여기서 아버지 되심이 사건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안 될 때 근심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근심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내 마음 안에 들여놓고 싶은 것들에 문제가 생길 때, 아니면 들여놓은 것들이 문제가 생길 때, 예를 들어 자식을 마음 안에 들여놓았어요, 누가 들여놓으라고 그랬습니까?
자식은 십자가 캡슐이 아니잖아요? 온갖 말썽쟁이 캡슐 아닙니까?
그걸 마음에 들여놨으니… 자식의 겉껍데기만 보면 예뻐 죽겠어요, 그 몸을 내가 낳았으니까.
그런데 자식도 인격이라서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내 안에서 껍데기 캡슐이 녹으면서 퍼져 나가기 시작하면 내게 가져다주는 게 근심밖에 없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므로 세상 캡슐들을 담아놓으니까 그 약효가 발휘되면서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그걸 담으라고 그랬어요?
세상 것 앞에서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나와 아버지 관계로 모셔 들이는 것이 사건만 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다 대면하시면서 이루어 가실 것이에요, 헤쳐나가실 것이고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끌어들여요, 이게 세상 근심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족들이나 사람들을 안에 담는 것, 그래서 세상 근심이 생기는 거죠, 이건 사망으로

끝나는 겁니다, 사망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과 떨어지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이 지금 이 현장에서 일어나야만 된다'는 근심과 염려, 이건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된다 이겁니다.

사람 관계 어떻게 맺고 계십니까?
그동안 나를 많이 사랑해주고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십자가를 마음에 품은 사람이 아니라면 근본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버리세요, 마음에 자리를 마련하지 마세요!
이웃이라도 오직 십자가만 가지고 살려는 이웃이 있다면 그분을 마음에 들여놓으세요.
그러면 그분의 겉모습이 녹아지고 내 마음속에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를 가지고 사는 모습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분이 붙잡던 십자가가 내 안에 두 배 세 배로 강화되어서 굳건히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이제는 십자가를 매개로 하는 관계로 바뀌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매개로 하는 인간관계가 바로 교회로 형성되어 가는 거예요.
꼭 예배당이라는 한 장소에 모여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옆집에 사는 사람이라도 서로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이게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매개로 하는 인간관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걸 가만히 듣고 그분 마음속에 십자가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절대로 그 목사님을 마음자리에 넣지 마세요.
그분을 마음자리에 넣으면 반드시 십자가 이외의 것들이 나타나면서 하나님과 내가 자녀가 되는 일을 방해합니다.
자꾸 내게 교회 일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일은 엄밀하게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시켜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자녀 관계로 사건이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당신의 계획을 따라 나로 하여금 교회 봉사도 하게 하시고 세상일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님들은 십자가 캡슐인간만 되어주시면 되고, 한 교인이 캡슐인간인 당신 자신을 받아들였을 때, 십자가에서 그 사람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짐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녀관계가 되고 나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주어질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되는 거지, 내가 자꾸 뭘 하라 하라고 그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 캡슐인간, 그 사람만을 우리는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고 인간관계를 해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교인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고, 본문에 나오는 디도가 바로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었고, 또 바울이 고린도교인들에게 그런 십자가 캡슐인간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내 안에 끊어지지 않고 있는 죄의 습성을 바라볼 때, 우리의 가족들에게조차 나를 마음으로 영접하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도바울처럼 십자가만으로 이 세상을 헤쳐 나가는 사람들이 됨으로써, 그 누가 우리를 받아들이더라도 그들에게 득이 될지언정 해가 되지 않는 십자가 캡슐인간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